



서가풍경

'아름다운 욕망' 이 그린 거대한 벽화

경기대 정운영 교수의 서가

정운영 교수(56, 경기대 경제학과)의 서재를 찾아가는 일은 하나의 '사건'이었다. 현관에 들어서서는 순간 '아!' 하는 감탄사부터 튀어나왔다. 책으로 사태를 이룬 도서관에 들어선 느낌이었다. 수만권을 헤아리는 책들이 방과 거실을 점령해버렸다. 마치 책들로 그린 거대한 벽화를 보는 듯했다.

서재 한켠에 놓인 캐비닛에는 벨기에 유학시절 구입한 1900년대 초의 문헌들이 차곡차곡 들어차 있었다. 《Great Soviet Encyclopedia》《Karl Marx Friedrich Engels Collected Works》《자본론》《현대 한국 문학전집》《世界經濟と 國際關係》... 그 가운데 전기·평전·회고록이 유난히 눈에 띈다. 체 게바라 관련서만 30여권이다.

“차가운 이론보다는 온몸으로 고난을 헤쳐왔던 인물들이 제겐 더 흥미롭습니다. 인물 관련서를 사 모으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언젠가 체 게바라 얘기를 써볼까 합니다.”

정교수의 책 욕심과 책 사랑은 각별하다. 먼지가 '침투' 할 세라 서가 칸마다 판지를 얹어놨다. 책에 흠집을 내는 게 미안해서 복사기까지 비치했다. 밑줄을 긋거나 메모할 부분은 복사해서 쓴다. 생계비의 대부분은 서가를 메우는 데 쓰인다.

“제가 경제학자긴 하지만 재벌 욕을 못하겠더군요. 책을 사 모으고 싶어하는 제 욕망과 자본을 축적하고 싶어하는 기업가의 욕망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욕망이라고 다 같지는 않을 것이다. 기업가들이 물질의 교환가치에 넋을 빼앗긴다면, 정교수는 정신의 사용가치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그의 욕망이 아름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박천홍 기자

